

해방이 아니었으면 죽었을 목숨, 청춘을 조국에 바쳤다

— 부민관 폭파사건 주역, 조문기 선생에게 듣는다

A patriot's recollection

김성환*

Kim, Sung WHan

府民會館에서 있었던 大東亞共榮團 民族蹶起大會 主催 國民總動員聯盟 總裁 朴春琴 名義로된 日帝 패당 前에 東南亞 諸國의 日本帝國에서 差出된 日本 괴대 政權 代表들이 各國의 民族服을 입혀 參席 하여 米英 격멸을 爲한 最後 發惡하는 鬪기 大會로 當時 專門學校 在學 中 이든 許 墳 學生(當時 學生 大隊長)로 參席한바 있으며, 總裁 朴春琴의 開會 辭 朝鮮總督의 致謝 朝鮮軍總司令官의 激勵辭 順序 에 이어 各國 代表의 演說, 民族藝術 等 多樣한 興 行으로 會議가 進行 中 끝 무렵에 演壇附近에서 느닷없이 “팡”하는 다이내마이트 소리가 터지는 바 람에 約 1萬 餘名으로 推定되는 觀衆이 한꺼번에 빠져 나오느라 좁은 出入口 2個로 밀어붙여 밀에 깔리고 깔려 一大 수라장을 이루었다.

許 墳 學生은 젊은 패기에 同僚 親舊들과 함께 날째게 빠져 나왔지만 다음날 新聞의 報道에 의하 면 出入口 밑에 깔린 婦女子 10名 可量의 死傷을 냈다는 것이다.(註)

올해는 해방 50년. 50년전 오늘의 상황은 어떠 했을까? 많은 이들은 전쟁 말기에 이른 일제의 가 혹한 지배를 이야기하며 당시의 어려움을 전하다. 민족해방운동도 그위세에 놀려 전열이 흐트러졌다 고 한다.

그러나 당시에 분연히 일어나 일제를 폭탄으로 응징한 열혈청년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바로 1945년 7월 24일 부민관 폭파사 건이 그것이다. 그 사건의 주역 조문기 선생으로부 터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들어본다.

“우선 부민관 폭파 사건을 어떻게 계획하시게 됐 는지부터 설명해주시지요.”

- 그 얘기를 하자면 우선 일본에서 활동한 것을 말해야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지요. 일본에서 같 이 활동하던 유만수 동지와 의논이 있었어요. 우리 가 독립운동을 하려면 우선 상해 임정으로 찾아가 야 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상해 임정에 가도 우 리 같은 어린 사람들이 큰 실적도 없는데, 가면 우 리를 어떻게 믿어주겠나 하는 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큰 거사 몇가지를 하고 그 업적을 가지고 상해임정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지 금 생각하면 나이도 어리고 세상물정을 잘 모른 채 혈기만 앞세웠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셨나요?”

- 독립운동 한 사람들을 보면 같지도 않은 일을 끌어들이 큰 일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그런 부류로 볼까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실제로 이뤄지지도 않은 일을 말한다는 게 우습

*반민족 문제연구소 사무처장

구요.

“그래도 역사에 기록으로 남긴다는 의미에서 말씀해주시죠.”

- 사람을 겨냥한 일을 먼저 계획했습니다. 친일파, 침략원흉들을 제거하기로 했지요. 거사를 위해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정보수집, 인원포섭, 무기준비 등을 했지요.

인원을 많이 모집했어요. 한 20명이 넘었으니까. 인원이 많을수록 위험했는데 주로 유만수 동지네 골방에서 모였습니다.

“부민관 사건은 어떻게 계획하게 되셨나요?”

-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거리에 대의당이 부민관에서 무슨 집회를 한다고 난걸 봤어요. 라디오에서도 나왔지요. 그때부터 계획에 없던 일을 갑작스럽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의당은 친일파 거두 박춘금이 만든 건데 나중에 알았지만 전쟁 말기에 우리 민족을 8천명, 혹은 2, 30만명을 학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박춘금은 관동대지진 때도 우리 동족을 학살한 장본인입니다. 살인마지요.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그런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친일파가 여는 행사를 깨부순다는 생각만 했지요. 우리는 이미 거사를 준비해 놓은 게 있어 그것을 가지고 행사를 무산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럼 목적은 단지 부민관 대회를 무산시키는 데 있었나요?”

- 그렇죠. 박춘금을 죽이려 했다는 것은 기록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대회를 해산시키려고 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쓴 기록에는 내가 흥길동이 돼있더군요.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붕을 타고 나물 타넘고 그랬다는 겁니다. 제발 내가 한 사실만 기록해 주기 바랍니다.

“사람들 모으고 총이나 폭약 구하기가 위험했을 텐데.”

- 폭약 구하는 거는 공사장에서 었습니다. 당시 는 방공호 같은 것도 다 지하에 만들었습니다. 마

참 신촌에 있는 변전소를 수색 땅속으로 이전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자연히 폭파를 많이 했지요.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때마침 한 동지의 매부되는 사람이 마침 거기서 일하고 있어 그 사람에게 일본인 감독한테 말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일본인 감독에게 일좀 시켜주시고, 일본 가서 일하면서 재주를 익혀 일은 잘한다, 우리는 곧 징병갈 사람이다.

부모님들 못볼지 몰라 일해서 부모님에게 맛있는 거나 대접해드리고 가려고 한다고 했더니 쾌히 승낙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하게 되었지요.

다이너마이트는 몸수색이 있기 때문에 찌까다비 바닥에 조금씩 묻혀서 가지고 나왔는데 양이 너무 적었습니다. 부지하세일이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피를 냈습니다.

당시에는 배급표를 줬어요. 물엿, 식권, 굴 같은 것이 다 배급표로 나왔어요. 구리고 담배도 표로 줬어요. 이 담배표를 가지고 흥정을 했습니다. 당시 담뱃효는 아주 귀했어요. 이것을 감독에 그냥 갖다주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드려구요.

이렇게 해서 환심을 사 두니까 믿고 이것저것 심부름을 많이 시키는 겁니다. 나중에는 폭약 가져와라, 뇌관 가져와라 하는 심부름까지도 시키는 겁니다. 당시 화약고는 커다란 철제금고 같은 것으로 돼있었고 아무나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나 이도 어리고 삭삭하고 하니 귀여워서도 심부름을 많이 시켰습니다. 심부름 갔다 오는 도중에 폭약을 여기저기 빼돌려 숨겨놓는 겁니다. 거기가 군대는 아니니까 경계가 삼엄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주위에 철조망을 쳐놓은 정도였지요. 그리고는 나중에 몰래 가서 찾아오는 거지요.

발파실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일을 시키다보니 발파도 시켰습니다. 발파는 한번 팡 하는 것이 아니라 한 30군데를 순차적으로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는 한참 동안 요란하게 납니다. 그 중간

에 우리 폭약을 끼워 발파시켜도 소리에 묻혀 아무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습까지 했지요.

권총은 두 자루를 준비했는데 결국 쓰지는 못했습니다. 애초에 계획한 거사를 하지 못했으니까요. 부민관에도 권총을 가져가기는 했는데 쓰지는 못했습니다.

“권총은 어떻게 구하셨나요?”

- 말하기 곤란한데... 당시 ○○○동지의 아버지가 일제시대에, 요즘 말로 하자면 친일파 거두였어요. 동장들 총책임자인 총대도 하고 높은 데까지 올라갔었는데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래도...”

- 권총은 오히려 쉽게 구했습니다. ○동지 아버지 집에는 헌병들이 자주 들락거렸고 권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동지가 어리고 하니 총 한번 구경 좀 하자고 하면 믿고 보여주었고 몇번 그러다가 한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자꾸 그러다 한 자루 빼돌리고 나중에 물을 때 잃어버렸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지요. 그 아버지 때문에 다른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았습시다. 이것을 부민관에 가져갔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다이너마이트는 잔뜩 가져다놨지만 시한폭탄은 만들어 놓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별안간에 만들더보니 심지를 쓸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 굵기만한 심지에 불을 붙여 놔뒀다가는 금방 발각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심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폭약은 뇌관과 함께 함석으로 싸고 바깥으로 나온 심지는 명주실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 만큼 아주 가늘었지요. 유만수 동지가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3일 걸려 만들어 시험을 해보았는데 1센티미터 타는데 1분이 걸리더군요. 3센티로 해서 3분만에 터지게 했습니다. 장치하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이었지요.

폭탄 3개를 만들어 하나씩 가지고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날 폭탄을 준비하다보니 벌써 대회가 시

작될 시간인 6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강윤국 동지하고 유만수 동지하고 나하고 셋이서 폭약을 장치하기로 했지만 계획을 바꿔 유만수 동지하고 나하고 둘만 폭탄을 들고 들어가고 강윤국 동지는 권총을 가지고 엄호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치하다 잡히면 안되니까요. 총독, 정무총감, 친일파 거두 다 참석하는데 경비가 좀 삼엄하겠어요? 그래서 장치하다 잡히면 권총으로 쏘라, 한 자루에 8발씩 들어가는 데 두 자루를 다 쏘라 하고 말했지요. 그 소리 때문에 소란해진 틈에 우리는 도망갈 기회가 생기고 대회는 대회대로 무산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실제 당일에는 어떻게 됐나요?”

- 잘못 알려진 사실이 많아요. 그해 11월 모 신문에 사실을 다 밝힌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글쓰는 사람들이 조작한 게 많습시다.

우리는 폭탄을 장치하고 나왔습시다. 그 뒤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지요. 당시에는 진상이 공개되지 않았습시다. 폭발해서 부민관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몇명이 죽고 건물이 어떻게 됐는지, 부상자가 생겼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3분만에 폭발하게 되었으니까 장치하자마자 나왔습시다.

“부민관이 지금 어디죠?”

- 전 국회의사당 건물(시청 앞에 있는)이죠.

“거사를 결심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 그럼, 결사적이었지요. 그러나 서로 참가하려고 했어요. 너도나도 지원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건으로 모두 죽을 수 없어서 다 뿌리치고 3명이 책임지고 하자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죽지 않았나요?”

- 그렇죠. 안 죽을 수는 없죠. 20명 죽었다고도 하고, 부상자는 많았지만 죽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도 하고 하는데 그것 다 추측입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일본놈들이 발표를 안했습니다. 대회가 무사히 끝났으면 대대적으로 공개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해방 뒤 신문기사는 모두 추측기사를 낸 겁니다.

“날짜는 책에 따라 7월 20일이라는 데도 있고 24일이라고 하는 데도 있던데요.”

- 24일입니다.

“그 사건 나고서 세 사람이 주동자라는 것은 밝혀졌나요.”

- 지명수배는 아니지만 전국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우리를 수배했습니다. 우리 대신에 600명이 끌려갔는데 현상금 때문에 더 많이 잡혀갔을 겁니다. 현상금이 그렇게 많이 걸렸는지 몰랐어요. 우리한테 5만엔이 걸렸는데 박춘금이 사저로 2만엔을 보냈어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해방후 그 600명을 거의 다 만나봤습니다. 우리 때문에 고생들 했으니까요.

해방이 조금만 늦게 됐어도 우리는 죽을 뻔했습니다. 반드시 잡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처럼 깊은 데 숨어 슬쩍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했는데 안 잡히고 배기나요? 반드시 잡혀 죽었을 겁니다. 해방이 우리를 죽지 않게 하려고 일찍 됐나봐요.

해방후에 박춘금이란 사람이 나를 만하고 하룻밤 만에 일본으로 도망갔어요. 우리 셋이 찾아갔는데 한국말로 우리가 왔다고 하니 박춘금이 일본말로 합시다 하더군요. 구런데 같이 간 친구 하나가 일본말을 하나도 못했어요. 참지 못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권총을 꺼내가지고 마빡에 대고 니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러느냐,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느냐, 우리가 네가 잡아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다. 그제야 자빠져서 덜덜덜 떨며 한국말이 서툴다고 짹짹 빌더라구요. 그런데 그날 잡아왔어야 했는데 그냥 온 것이 한이 됩니다. 그 이튿날 사람을 보냈더니 하룻밤 사이에 일본으로 도망갔더라구요. 도망갈 준비가 다 돼있어나 봅시다.

“그럼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서 친일파나 침략원흉들을 제거하기로 결심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일본에서의 활동을 소개해 주십시오.”

- 당시 나는 나이는 어렸지만 막연히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던 중 일본 회사가 신무에 간부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나는 일본과 투쟁하려면 그들의 심장부로 가서 그들의 실상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원하여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본강관주식회사에서 일하면서 만주에서 활동하다 온 유만수 동지 등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독립운동의 기회를 이제나 저제나 엿보고 있었습니다. 유만수 동지가 가장 뛰어났지요.

그런던 중 회사에서 우리 조선인 훈련공들을 멸시하는 내용으로 된 책자를 내서 배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마다 기숙사에 몰래 모여 그에 대해 항의하는 거사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지정한 날에 일시에 식당에 모여 농성에 들어간겁니다. 식당이 엄청나게 컸고 거기에서 작업조마다 교대로 식사를 하는데 사전에 식사를 마치고 제자리에 남아있도록 지침을 내려놓았던 거지요.

그러니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간부나 사장이 농성 식당에 와서 뭐라고 달래기도 하고 협박도 했으나 우리는 꼬떡도 안했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서장이 왔지요. 그러나 경창서장이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밥그릇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헌병대장도 그런 식으로 왔다가는 도망하고 했어요. 3일동안 그랬는데 현장에서 다 잡혀가면 끝나니까 마지막에 우리 주모자들은 빠졌지요. 결국 해산당했고 해산 뒤 모두 잡혀갔습니다.

“요구조건은 관철이 안됐는가요.”

- 관철이랄 것도 없지요. 기대하지도 않았으니까요. 해산된 뒤 우리는 기숙사에 있다 도망나왔지요. 갈 곳을 미리 준비해뒀어요. 대성조라고 노무자 단체가 있었는데 그곳과 연락이 돼서 거기에서 밥먹고 잠지고 하면서 하역작업을 했죠.

“대성조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 대성조에서는 특별한 활동을 한 것은 없고 그

뒤 징용은 한국인들 빼내서 고향에 보내주는 일을 했어요. 징용와서 꼼짝 못하고 호된 일을 하고들 있었어요. 도쿄하고 가와사키 중간 지점에 아사쿠사라고 하는 해변가에 히다찌조선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많이들 있었어요. 우리가 가서 일하겠다고 하면 환영했지요. 인력이 많이 모자랐으니까요. 일하면서 끌려온 한국인들을 하나씩 빼냈습니다. 순박한 사람들이라 다른 데서 월급받고 일하는 데가 있어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을 하나씩 빼내서, 결국 한 70명 빼냈지요.

“말하자면 위장취업을 하신 거네요.”

-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유만수 동지랑 상해 임정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해방 뒤 부민관사건이 잘못 알려진 적도 있다고 하던데요.”

- 김형국이란 자가 있었는데 이자가 일제 때 군수를 한 자인데 경력을 모두 위조해서는 자기가 일제 때 엄청난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조작을 했어요. 임정36호인가하는 책도 냈고, 신문에서도 그에 관한 특집기사가 나가고 그랬지요. 그런데 부민관 폭파사건도 자신이 임정의 밀명을 받아 우리를 사주해서 한 것으로 돼있더라고요. 하도 기가 막혀서 신문사에 쫓아다니면서 사실을 밝혔죠.

임종국 선생도 큰일날 뻔했지요. 그 놈이 임선생을 찾아가 조작된 책들을 내놓고 자기 전기를 써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돈도 좀 드린 것 같아요. 어느 날 임선생을 찾아뵙는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큰일날 소리라고 말씀을 해드렸지요.

나중에 그 자가 나한테 사과편지를 몇번했는데 그때는 보니까 이름이 김홍국이야. 책피하니까 이름을 바꾼 모양입니다.

“그리고 해방후 살아오시면서 국가로부터 어떤 포상이 있었습니까?”

- 82년도까지는 국가에서 혜택이라고는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총무처에서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내서 조문기 거처를 아는 사람 찾는 것이 나왔더라구요. 독립유공자 신청은 경력 확인이 복잡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금방 될 텐데 신청을 안하니까 공고가 나더라고요.

신청을 계속 안하다가 70년대 말에 내가 나서서 강운국 동지만 신청해줬습니다. 강동지는 지금 몸져 누워있고 아주 어렵게 살고 있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유만수 동지는 굶어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10여년 전에 죽었습니다. 애들을 뭐 그렇게 많이 낳았는지...